

대선불복 vs 헌법불복... 정치권 '불복정국' 치닫나

맥빠진 국감...여야 한치 양보없는 설전만

31일 대검 등 종합감사 공방 최고조 예상

국정감사 도중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대선 불복' 세력으로, 민주당은 여권을 '헌법 불복' 세력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불복(不服)'이라는 단어가 첨예한 여야 대치 정국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국정감사 자체는 맥이 빠진 상태에서 여야의 정치공방이 오히려 여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대선 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은 금세 야당의 취지를 알아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형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대선 불복 국감'으로 변질시켰다"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직적 대선개입은 명백한 헌법 불복행위이고 이를 비호·은폐하는 행위도 헌법 불복"이라며 "헌법수호세력"과 "헌법불복세력"간 한관 승부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 대해 "언제까지 대통령의 눈치만 보며 호위무사만 자처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여야가 이처럼 대립점에 서서 '불복 대결'을 벌이면서 이번 주 중반으로 접어든 국감에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힘겨투기가 점점 더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주 중반에 경기도 화성과 포항 남·울릉 2곳의 재·보선이 치러질 예정이어서 이를 측면지원하기 위한 여야의 신경전도 가열될 전망이다.

대검찰청·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교육부·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31일은 여야의 공방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의 대검 감사에는 권력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란 배경 수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의혹 및 사퇴 압력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슈들이 준비해 화력을 총동원한 양측의 정면대결이 예상된다.

회 종합감사에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불복 공방'이 불가피하다.

복직위의 보검복지부 국감은 기초연금 후회 논란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국감은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 정비사업'의 대운하 전환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이번 싸움에서 밀리면 치명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정국의 긴장도는 국감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국감 후 주요 민생법안과 예산안 심의가 난항 하면서 황창헌 감사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검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안 처리가 협로를 걸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갈등 호남고속철 시운전 파행 우려

이운석 의원, 양측 비협조 지적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간 갈등 때문에 호남고속철 시운전 파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운석 의원은 지난 25일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시운전 일정을 불과 한 달 남짓 시점에서 공단은 공사 측의 비협조를 이유로, 공사는 호남고속철 도입 과정의 비효율적인 업무절차와 시운전 시 우려상황에 대한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양기관의 상황을 보면 시운전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단 측은 계약문서 처리 착구는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만 공사 측은 국토교통부의 경쟁제 도입 추진으로 협약을 통해 구매 권한이 공단에 넘어갔으나 추가예산, 감독 등의 업무를 공사, 공단, 제작사가 3자 협의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협약 준수 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서로에 대한 불신에서 생긴 일이라 생각된다"며 "호남고속철 차량 시운전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갈등장론이라고 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호남고속철 차량은 다음달 말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며 공단은 지난 9월2일 시운전 시정계획과 운행시각표(안)를 공사에 제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한길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국회 분수대 광장에서 열린 '헌법불복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광뉴스

손병두 "간첩 날뛰는 세상보다 유신시대가 좋았다" 파문

김한길 "아버지 대통령각하 호칭 '어버이수령' 닮은 꼴"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지난 26일 현 정부에 대한 야권 일부의 '유신회귀' 주장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부르짖는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경련 부회장 출신인 손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 추도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경북 구미시 삼도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도 새누리당 심화봉 의원은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며 박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 뒤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 찬양 호칭은 (북한) 부자세습 정권의 '어버이수령'이란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았다"며 "이러한 호칭은 우리를 섬뜩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6일 손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자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병두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지난 26일 현 정부에 대한 야권 일부의 '유신회귀' 주장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이 말에 대해 우리 서민들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경련 부회장 출신인 손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34주기 추도식에 참석,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같은 날 경북 구미시 삼도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열린 추도식에서도 새누리당 심화봉 의원은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며 박 전 대통령을 '아버지'라 부른 뒤 "아버지의 딸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아버지 대통령 각하"라는 극존, 찬양 호칭은 (북한) 부자세습 정권의 '어버이수령'이란 신격화 호칭과 매우 닮았다"며 "이러한 호칭은 우리를 섬뜩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지난 26일 손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자국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군사이버사령부 조직적 여론조작 확인"

진성준 의원, 국방부 장관 표창자 5명 공적조서 공개

'넷글 대선개입' 논란을 일으킨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이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 활동을 벌였으며 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 공조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이버사령부 내 국방부 장관 표창자들의 공적조서를 분석한 결과로 토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5인의 공적조서를 공개했다.

진 의원은 따르면 2011년 3월25일

2011년 10월25일 표창을 받은 사이버사령부 전담 정보 간부(군무원)의 공적조서에는 "국가-국방정책 및 국가보위를 위한 공적적 사이버 심리전 홍보활동 시행, 10년도 목표 초과달성(계획 2000만회, 성과 2300만회), 북한의 천안함 폭침·G20 정상회의·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등 국가 국방위기사상 등에 대한 비난여론에 적기 대응해 비난여론 차단에 기여"라고 적혀 있다.

진 의원은 또 사이버사령부의 조모 부사관의 공적조서 내용을 근거로 "사이버사령부가 조직적인 활동 및

평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이버사령부 전담 박모 운영과장 공적조서에는 "국정원·경찰청·정보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활성화 등을 통해 정보누락 위험성을 제거하고 민간관 합동대응을 주도적으로 선도함"이라고 언급돼 있다.

진 의원은 "사이버사령부가 창설 때부터 국정원과의 긴밀한 공조 속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여론조작활동을 벌여왔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검, 국정원 의혹 수사팀장에 '공안통' 이정희 부장 임명

대검찰청은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윤석열(사법연수원 23기) 전 특별수사팀장의 후임으로 이정희(47· 23기) 수원지검 형사1부장을 임명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검은 또 정진우(41· 29기) 수원지검 부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 이 팀장과 정 부부장은 28일부터 수사팀에 합류한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수통'으로 분류되던 윤 전 팀장 대신 공안 수사 경

험이 풍부한 '공안통'인 이 팀장이 임명됨에 따라 검찰의 수사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로 수사 실무진은 이전한 2차장검사와 이 팀장, 박형철 부팀장, 정진우 부부장 등 주요 간부급이 모두 공안 검사로 채워졌다. 경북 상주 출신인 이 팀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역임한 정통 '공안통'이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 061-333-7077,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부실채권(NPL) 매각

화정동 예식장
대지:1094㎡ 건물:4489㎡
감정가격:41억5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월출동 공장
대지:광주시소유 건물:2353㎡
감정가격:21억6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금남로4가 빌딩
대지:800㎡ 건물:4834㎡
감정가격:69억3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쌍암동 나이트클럽
대지:3238㎡ 건물:3090㎡
감정가격:89억7천 채권매각:상담시 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당 사무실)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충정로5가 버스도모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9억6천
- 합평군 영암 살리는 여관 대지 320평 건물211평 객실 21실과 함께 있는 2층 주거지 504평 주거지에는 소형 APT나 다세대적합 대출4억 교환도 가능 10억5천
- 월릉·다세대적합지 북동상업지 64평 매도1억6천
- 계림동 구호텔건물 대지 542㎡(164) 건평 1200평 요양시설·병의원·현의원·사육동에 적합 18억
- 대인동 소방도정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9억5천
- 조선대학교앞 동명동 고시원과 주택 및 사무실용 건물4동 대지321평 건물592평 고시원176실 전세5천만원에 월3500만원선 수입예상. 대출9억 임대수익생활에 적합. 소유권 이전은 법인이전 가능할 17억
- 공장부지 나주시 남평을 비행장으로부근 2192㎡(663)와 주택 매도 2억4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쓰리룸 92개 허가. 주택가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4천
- 매도. 신안군 지도읍 아파트. 중도에 슬로시티와 엘도리로 가는 길. 바다가 보이는 별장용APT. 모임이나 회사의 복지시설도 적합. 30평과 41평이 있고 대출은 8천에서 1억가능. 가격은 전세10000에 월40선. 매대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투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촌동 (구) 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사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주)다와부동산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근린시설임할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2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2309㎡ 감정가13억 최저가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억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저운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신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대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복지 대지.전 2115㎡ 매대5천만(조정가)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념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